

# NEWS

## 한일경제협회 소식

### CONTENTS

#### 한일경제협회 소식 제27호

발행인 | 조석래  
 편집위원장 | 이종윤  
 편집위원 | 조덕모 · 김정호 · 홍소영  
 간사 | 한수아 · 서광현  
 발행 |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 112-15번지  
 한일재단빌딩 4F  
 TEL/02-3014-9888  
 FAX/02-3014-9899

인쇄인 | 윤종우  
 인쇄 | 웃고문화사  
 서울시 중구 필동 23-1  
 TEL/02-2267-3956  
 FAX/02-2268-2361

#### 협회 활동

- 제45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안내 ▣ 2013. 4. 23~4. 25 ▣ 1
- 제14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안내 ▣ 2013. 3. 7~3. 8 ▣ 2
- 제19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개최결과 ▣ 2012. 7. 24~7. 28 ▣ 3
- 제13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개최결과  
 ▣ 2012. 10. 17~10. 20 ▣ 5
- 제19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개최결과 ▣ 2012. 11. 7~11. 9 ▣ 8
- 제1회 한일통상포럼 개최결과 ▣ 2012. 10. 9 ▣ 11
- 한일 업종별 네트워크 구축 및 비즈니스 교류회 개최결과  
 ▣ 2012. 11. 20~ 11. 23 ▣ 12
- 서울재팬클럽(SJC) 교류 간담회 ▣ 2012. 9. 7 ▣ 14
- 주한일본대사 초청 간담회 ▣ 2012. 10. 19 ▣ 16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의 활동

- 한일산업기술페어 2012 ▣ 2012. 9. 25 ▣ 17
-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 ▣ 2012. 11. 28 ▣ 21

#### 특별 기획

- 한일 하나의 경제권을 향한 구체적 전략 23
- 글로벌 비즈니스전략 지침서 '블룸 존 전략'에 대해서 29

#### 한일 통계

- 한일 교역·인적교류 현황 통계 33

#### 신규가입 회원사

34

#### 2013년 한일경제협회 연간 사업계획

35



# 제45회 The 45<sup>th</sup> Korea-Japan Business Conference

## 한일경제인회의 개최안내

- 2013년 4월 24일 ~ 25일 서울 롯데호텔 -

한일 양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기업·단체의 최고 경영자 300여명이 매년 정례적으로 만나 양국 기업인 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한일 간의 경제현안 사항에 대한 진솔한 논의를 통해 양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오고 있는 한일경제인회의가 오는 2013년 4월 24일(수)~25일(목)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일의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동북아 통상질서의 새로운 전개와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또한 미국·유럽의 시대에서 동아시아 시대로의 구조개편 과정 속에서, 한일의 공동대응에 대한 논의가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산업발전 과정에서 다양한 국내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성장과도기의 환경변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차이나 리스크에 대비하는 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일 양국의 공동대응이 요구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1969년 이래 제4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따른 한일 양국 경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의 경제권 형성의 확대·심화를 위한 양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해 보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제45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안)

- | 기 간 | 2013년 4월 24일(수) ~ 25일(목)
- | 장 소 | 서울 롯데호텔
- | 테 마 |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 새로운 한일관계(가제)
  - 세션1 : 글로벌 경제조정기의 여파와 한일 양국의 대응방안
  - 세션2 : 하나의 경제권 확대심화를 위한 한일협력
- | 규 모 | 한일 양국 기업(단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300여명
- | 주 최 | (사)한일경제협회, (사)일한경제협회
- | 협 력 | 지식경제부,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문의 : 김정호 부장 TEL : 02-3014-9877 / E-mail : jhkim@kje.or.kr  
서광현 사원 TEL : 02-3014-9886 / E-mail : khsuh@kje.or.kr



## 제14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안내

-2013. 3. 7~8 / 서울 COEX-

우리협회와 한국무역협회, 일본의 일한경제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14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가 2013년 3월 7일(목)부터 8일(금)까지 이틀간 서울 COEX에서 개최된다.

한일신산업무역회의는 한일경제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 가운데 3개 위원회(무역투자위원회, 기계공업위원회, 산업일반위원회)를

통합하여 신설된 회의이다. 한일 간 산업·무역·투자 등 공통의 과제에 대한 실천적 문제 해결형 회의로, 한일경제인회의를 통해 양국 정부 및 관계기관 등에 정책 제언 및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본 회의는 '99년 10월 제1회 회의 개최 이후, 이번에 14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 ▣ 제 14 회 한 일 신 산 업 무 역 회 의 개 최 ▣

일 시	2013년 3월 7일(목) ~ 8일(금)
장 소	서울 COEX
주 최	한국측 - (사)한일경제협회, 한국무역협회 일본측 - (사)일한경제협회
규 모	한일 양국 체어맨, 코디네이터 및 위원 등 50여명
미 셴	한일간의 무역확대 한일간의 투자확대 한일간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 한일산업경쟁력강화 프로젝트

### ▣ 주요일정

날짜	주요 활동 사항
3/7(목)	18:30~20:30 만찬교류간담회(한일 양측 참가 위원 교류 간담회)
3/8(금)	09:30~11:50 전체회의(1):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 12:00~13:00 오찬회 13:10~15:30 전체회의(2): 표준화분야의 한일협력 방안 ~ 표준화 협력을 통한 하나의 경제권 구축 ~

※ 문의 : 김정호 부장 TEL : 02-3014-9877 / E-mail : jhkim@kje.or.kr  
서광현 사원 TEL : 02-3014-9886 / E-mail : khsuh@kje.or.kr

## 제19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개최결과

우리 협회와 일한경제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19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가 지난 7월 24일(화)~28일(토),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 캠프는 ‘한일 청소년교류 사업’의 일환으로써 한일 관계의 차세대를 짚어질 청소년들의 교류 확대를 위하여 2004년 1월 제1회 캠프를 시작으로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였다.

특히, 이번 캠프는 중소기업청(청장 송중호)과 창업진흥원(원장 백두옥)의 지원을 받아 처음으로 비즈쿨(Bizcool) 고교생들이 참여하여 양국 고교생이 함께 비즈니스를 기획하는 체험형 경제교육 방식으로 열렸다.

한국 학생 42개교 50명, 일본 학생 40개교 50명(\*합계 양국 82개교 100명)이 참가한 이번캠프의 사업발표회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사업명으로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을 발표한 10팀(Fight 10)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전기를 이용한 친환경타이어에 대해서 발표한 1팀이 창업진흥원장상을, 일반 관광열차의 수익으로 장애우들에게 무료관광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D.D.T/Do Dream Train)을 기획한 9팀은 심사위원특별상을,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심정과 상황에 따른 음식의 레시피를 소개해 주는 어플리케이션(Doctor 밥さん) 사업을 기획한 7팀이 팀워크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노인을 위한 출장 요양 서비스로, 노인을 위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브랜드화 한 아이팀(Silver Sitter)에 대한 사업을 발표한 6팀은 인기상을 수상하였다.



총평 및 폐회인사에서 우리협회 이종윤 상근부회장은, 모든 팀이 한국과 일본,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사업발표를 잘 해 주어서 우열을 가리기가 무척 어려웠으나, 각각의 특징을 잘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본 캠프의 특징이며, 모두 잘

해 주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한일 학생 모두 꿈을 잃지 않고,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는 씨앗(種子)의 역할을 다하여 한일관계가 더욱 돈독하고 활발해 질 수 있도록 활동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㉞



<심사위원 : 사진우측부터 일한경제협회 고레나가 카즈오 전무이사, 한일경제협회 이종윤 부회장, 한국스미토모상사 코바야시 타다시 대표이사 사장, 하이소프트 기병태 회장, 창업진흥원 박인숙 본부장, 한국경제교육협회 박상득 사무총장>

## 제13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개최결과

우리나라 동해안 4개 자치단체(대구·울산·강원·경북)와 일본 호쿠리쿠(北陸3縣 : 토야마·이시카와·후쿠이)지역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제13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가 지난 10월 17일(수)~20일(토), 일본 후쿠이현 후쿠이후지타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본회의는 양국 파트너십 강화 및 산학기술협력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2000년부터 일본 호쿠리쿠지역(이시카와현, 토야마현, 후쿠이현)과 함께 개최하고 있는 회의이다. 2000년 7월 일본 토야마현에서 개최된 제1회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열리고 있으며, 지금까지 양국간 교류는 13년간 2,166명(한국 887명, 일본 1,279명)이 참가해 지자체 MOU체결 및 192개의 경제협력 사업에 합의했고, 기업간 377건 4천390만달러의 비즈니스 상담을 추진하는 등 지역 경제협력의 발판을 마련해왔다.

이번회의에는 한일 양국 정부 대표로서 지식경제부 주력시장협력국 엄찬왕 부이사관 및 경산성 중부경제산업국 오하시 료스케 지역경제부장을 비롯하여, 양측 5개 지방자치단체(\*한국측: 강원, 경북 / \*일본측: 이시카와현, 토야마현, 후쿠이현), 경제단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서 151명이 참가하였다.

한일 양국의 경제적 현안을 살펴보고 향후 공동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한 이번 회의는 3개의 업종별 전문분과회(의료융복합, 물류·인적교류, 환경산업)와, 후쿠이산업회



관에서 개최된 ‘호쿠리쿠기술교류테크노페어 전시상담회’로 나누어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의 주요 성과로 한국 DBS 크루즈훼리(동해시)와 일본 후쿠이현 항만관계자, 신일본훼리, JR서일본의 담당자 간에 신항로 개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한국의 (주)윈이세라믹에서 일본 수출용 제품 생산을 위한 폐플라스틱 물량을 일

본에서 공급받기로 결정하고 샘플을 의뢰하는 등 큰 성과를 보였다. 한편, 12회 회의를 계기로 한국 기업과 MOU를 체결한 일본의 (주)코칸도에서 한방약 공동개발에 대한 비전 제시 및 대구한방병원의 의료 관광과 약선요리의 접목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요 성과

### ① 신항로 개설 협의

한국 DBS크루즈훼리(동해시)와 일본 후쿠이현 사이의 신항로 개설에 대한 협의

- DBS크루즈훼리가 일본 후쿠이현의 츠루가항으로 신항로를 개설하기로 하고 국토해양부에서 항로개설 허가를 받았으나, 담보 상태에 있었음
- 이번 회의에 참가한 DBS크루즈훼리측을 위해 미팅을 어레인지한 결과, 후쿠이현 항만관계자, 신일본훼리 담당자, JR서일본의 담당자와의 만남을 통해 신항로 개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

### ② 일본으로의 역수출을 위한 원재료(폐플라스틱) 수입

한국의 (주)윈이세라믹에서 일본 수출용 제품 생산을 위한 플라스틱 물량을 일본에서 공급받기로 결정, 샘플 의뢰

- 일본 T사 협력으로 원주에 자동차공장을 건설 중이며, 이 중 자동차범퍼를 (주)윈이세라믹에서 생산할 예정
- 이번 회의를 통해 공급 가능한 일본 기업과의 매칭 성사, 플라스틱 샘플 의뢰, 테스트 후 통과되면 바로 수입하기로 결정
- 회의 후, (주)윈이세라믹의 이상우 대표가 K연구소의 초대로 공장 견학 및 향후 진행과정 의논

## ③ 한방산업 제휴 가능성 확대

제12회 회의를 계기로 한국 기업과 MOU를 체결한 일본의 K사에서 한방약 공동개발에 대한 비전 제시 및 대구한방병원의 의료 관광과 약선요리의 접목에 대한 협력방안 모색

- 한일 한방약의 공동개발 : 일본 K사와 (주)함소아제약 간 복합제제 공동개발 및 의약품, 제품 유통사업에 대한 공동협약 체결을 통한 시장 개척 모델 제시
- 일본 K사에서 대구한방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방의료관광의 약선요리에 대한 구체적 협력 방안 모색

## ④ 호쿠리쿠지역 기업 정보 제공 합의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에서 발표한 한일 양국 기업의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일본 호쿠리쿠측에서 기업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일 양국 기업의 통합정보 시스템인 KJTNET에 대해 일본 호쿠리쿠경제연합회 및 호쿠리쿠경제연구소에서 관련 기업 정보를 제공받기로 합의함

## ⑤ 전시상담회 개최 결과

- 한국 11개사 출품
- 상담 : 57건 / 상담 거래 금액 : \$ 78,100,000

- 원이세라믹(주) : 일본 T사에 자동차용 범퍼를 수출하기 위한 원자재(페플라스틱) 수입 / ※연간 1억 4,000만불 규모
- (주)이레텍 : 모터시스템 관련 대리점 계약으로 일본시장 진출 기반 구축

## ⑥ 나카무라토메정밀공업의 대구지역 투자사례 소개를 통한 대한투자 분위기 조성

- 2011년 12월에 대구에 현지법인 설립
- 한국진출이유 : FTA의 혜택, 비용 절감, 물류의 편리성, 인센티브 등

## 제19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개최결과



- ▶ 한·일(큐슈) 경제교류회의는 '93년 11월 제1회 회의 이후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면서, 양국 지역간 산업협력 발판을 마련
  - 19년간 한국 897명, 일본 1,270명 합계 2,167명이 참가

「제19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가 지난 11월 7일(수)~9일(금), 일본 가고시마현 이부스키시 이와사키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일본 큐슈(九州)지역과의 무역·투자·산업기술협력 확대 등 지역간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한일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기업 등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양국 간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본회의는 우리측의 주일본대한국대사관 강명수 상무관(국장)을 단장으로 47명이 참가하였으며, 일본(큐슈)측에서는 경제산업성 큐슈경제산업국 히로자네 이쿠로(廣實郁郎) 국장을 단장으로 70명이 참가하여, 총 117명의 참가자 간에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2개의 전문분과회(바이오식품, 환경·에너지기계 관련)를 통해 8개의 실질적인 한·큐슈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제안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의견교환을 실시하고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이날 동시에 실시된 비즈니스 상담회는 한국측에서 12개사, 일본측 기업 23개사(33명)가 참가한 가운데 수출 및 현지 진출 상담을 벌여 총 58건, 1,126만달러의 상담 실적을 거둬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분과회 참석자 대부분은 소규모 분과회였지만, 짜임새 있고 깊이 있는 의견교환이 가능하였으며 일본과의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바이오식품, 에너지(신재생에너지)등에 대한 정보 수집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의 최신 정보 입수를 통해 향후 사업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던 유익한 회의였으며,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설문에 응답하였다.

제20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는 2013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장소, 시기 등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다. ☞

## 제19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제안 및 논의사항

### ☞ 한국측

제안 사항	제안 내용
동남권-큐슈권의 초국경 협력 및 과제	- 한일신시대를 맞이하여 국경을 초월하는 새로운 지역연계 모델로 동북아시아를 리드하는 초국경 경제권 구축과 과제에 대한 제안
KJTNET을 활용한 한일간의 산업, 기술, 비즈니스 교류확대	- 온라인비즈니스매칭전용 플랫폼(KJTNET)을 통해 한국, 일본기업 대상으로 양국의 비즈니스(수출/수입, 기술제휴), 기술인력 정보 제공·알선·기술매칭 등 서비스 제공 - 큐슈산업기술센터에서 향후 KJT -NET 을 공유하여 비즈니스 교류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관련 팸플릿 등을 받아 큐슈내 연구기관 등에 홍보 협조
한일(큐슈) 부품·소재 협력방안	- 자동차 부품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큐슈지역과의 한일 자동차 부품·소재 산업 협력방안으로써 한국 남부와 큐슈지역을 묶는 자동차 생산벨트 형성 제안
대덕 이노폴리스와 키타큐슈 학술연구도시 교류협력방안 연구	-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를 지향하고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하고 있는 대덕이노폴리스와 키타큐슈 학술연구도시간의 연계방안 제안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와 키타큐슈 학술연구기업간의 MOU 체결 등

### ☞ 일본측

제안 사항	제안 내용
(사)한일인재·기술협력 기구와의 사업연계 강화	- NACS와 (사)한일인재기술협력기구는 2010년 11월 ‘글로벌인재 일본취직페어’를 개최하였으며 한국 전문인재를 일본기업과 매칭하는 장을 무상으로 제공,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제공하는 장 - 기술 노하우를 가진 기관으로부터 기술연수를 받거나 학생간의 교류행사를 실시할 것을 한일 양국 고등학교에 제안
큐슈와 한국과의 초광역 연계사업	- 제15회 한일(큐슈) 경제교류회의에서 제안된 한일 합동 조사에 의거하여 '09년부터 환경, IT, 바이오비즈니스 관련 연계사업을 추진, 바이오·IT분야의 미션단 파견 등의 상호교류를 제안

제안 사항	제안 내용
한일(규슈) 의료·개호(요양보호) 교류사업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간호, 개호, 예방의료 등 의료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정보교환을 촉진하기로 합의</li> <li>- 한-규슈 의료, 개호교류 사업(세미나, 시설견학)을 적극 추진하고, 한국 의료기관 IT화 선진사례 등 정보제공과 관계기관 협력제안</li> </ul>
「건강·행복·관광의 도시 이부스키」 한국과의 교류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부스키시는 의료, 관광, 음식문화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교류를 촉진하고자 하며, 그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 및 교류를 희망</li> </ul>

☞ 테마별 전문 분과회 내용

테마	주요 내용
바이오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일 양국의 바이오식품·건강기능식품의 동향에 대한 현황 파악과 정보수집, 향후 한일 협력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슈의 농림수산업의 수출액이 일본전체의 20%를 차지하며, 식품·음료의 제조업 출하액이 역내의 20%를 웃도는 등 규슈는 일본의 식료공급기지임</li> </ul> </li> <li>○ 규슈지역 바이오클러스터 추진협의회(회원수 : 220사)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예방의학·서비스 산업과 연계한 기능성 식품과 건강식품의 한일협력을 강화가 기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대 주요사업 : 네트워크 구축, 신사업 창출, 연대촉진, 판로개척정보제공</li> </ul> </li> </ul>
환경에너지 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친환경 에너지 기술 현황과 규슈의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등] 및 에너지 절약[전력소비량의 가시화를 통한 절감효과] 동향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향후 대응 및 협력 방향 모색하는 계기가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슈내에는 세계최대 규모의 태양전지 생산거점과 태양전지모듈 신뢰성평가시설, 일본 최대의 지열발전소가 입지되어 있음</li> </ul> </li> <li>○ 한일 양국 기업의 환경·에너지 신기술에 대한 정보습득과 파트너십 구축, 그리고 신기술 홍보를 통한 상호 협력 방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절감장치(주식회사 하이세스)기술과 관련하여 일본기업과의 협력에 깊은 관심이 있었으며, 기업간 1: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도 일본 기업으로부터 큰 인기를 얻음.[월 1억2천만원의 계약 기대]</li> </ul> </li> <li>○ 한일 양국 모두 에너지 자급률이 낮고, 세계적으로도 저탄소, 에너지절약, 지구온난화문제 등 국제 환경 정서에 대응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비즈니스로의 발전이 기대되는 환경 조성에 협력하고 상호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는데 합의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일 공동연구를 통한 윈윈 관계 구축, 에너지기술의 비즈니스화, 신흥국 등 제3국 공동 진출을 통한 새로운 활동과 세계 공헌</li> </ul> </li> </ul>

## 제1회 한일통상포럼 개최결과

지난 10월 19일(화), 한국무역협회 52층, 마르코폴로실에서 제1차 한일통상포럼이 개최되었다. 본 포럼은 불확실한 세계경제 상황과 경기부진이 장기화됨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한일 간 경제통상분야 현안문제의 발전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본 포럼은 최근의 한일관계에 대한 의견 교환을 통한 경제통상 분야의 이슈 발굴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한일 양국 정부에 통상현안 정책 제언 및 전략사항으로써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무역협회 안현호 상근부회장, 한일경제협회 이종운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학계 및 경제계, 연구원, 언론사 관계자 17명이 참가하여 한일통상포럼의 설치 및 운영 방향과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한일협력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모임의 성격상 상대 파트너가 중요하기 때문에, 틀이 있는 조직과 유기적이고 연속



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 SJC(Seoul Japan Club) 및 일한파트너십 포럼 멤버를 대상으로 하는 일본측 위원 구성(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역량 있는 일본측 인사를 추천 받아 회를 거듭할수록 발전성이 있는 포럼으로 재구성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의 한일통상포럼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한일 간 경제통상분야에 포커스를 맞춘 포럼의 설치를 통해 한일 간 소통의 장으로서 활용할 것을 기본 성격으로 삼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일의 구심점이 되는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준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

### ■ 제12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연기

- 다오위다오(일본명 :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일 간 영토분쟁으로 인해 2012. 9. 18~21 중국 런윈강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12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가 내년으로 연기되었다. 중·일 관계가 다소 완화되면서 2013년도에 중국에서 다시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세계 경기 둔화와 저성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중·일이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구체화하여 삼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 한일 업종별 네트워크 구축 및 비즈니스 교류회 (자동차부품산업) 개최결과

지난 11월 20일(화)~23일(금)까지 일본 나고야지역에서 ‘한일 업종별 네트워크 구축 및 비즈니스 교류회(자동차부품산업)’가 개최되었다.

일본의 완성차업체인 미쓰비시자동차와 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개최된 이번 교류회는 한국부품업체의 대일진출기반을 만들어주고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교류회에는 우리협회 이종윤 상근부회장과 자동차부품연구원 허경 원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한국의 자동차부품관련 기업 23개사 및 관련 기관 등 47명의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교류회 둘째날인 21일에는 미쓰비시 공

장 및 협력업체인 히루타공업 견학, 도요타 산업기술기념관 시찰이 있었으며, 일본의 기술력과 선진시스템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셋째날인 22일 진행된 1:1상담회에서는 한국기업 23사와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 및 협력업체 12사가 참가한 가운데 부품 수출 및 기술제휴관련 상담을 벌여 총 45건, 620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거두었다.

같은 날 저녁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한일 부품업계 협력을 통한 양국 자동차 및 부품 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라는 테마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한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분석과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한 산업연구원 조철 주력 산업팀장은, 한국 자동차산업의 품질·기술 경쟁력이 강화되었으며, 향후 친환경자동차와 지능형자동차 등 미래패러다임에 대한 한일의 공동대응으로 한국을 부품조달기지로 하기 위한 협력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발표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이덕근 중소기업성장동력정책단장은 ‘부품·소재산업의 정부 지원 정책’을 통해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한 한국 부품·소재 산업의 현황과 자동차부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등을 소개하였다. 한편, 일본측에서는 일본미쓰비시자동차 핫토리 유키히로 구매본부장이 ‘미쓰비시 자동차의 조달 조직과 조달 정책’에 대한 발표를 통해, 미쓰비시자동차의 글로벌 소싱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미쓰비시에서는 부품의 해외조달 비율을 2013년 25%, 2015년에는 30%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본 교류회는 미쓰비시 측과 한국기업 모두로부터 만족스러웠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내년 상담회는 미쓰비시측의 요청에 따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 서울재팬클럽(SJC)과의 교류 간담회

지난 9월 7일(금) 우리 협회는 협회 회원사 임원과 SJC 임원단과의 만찬 교류 간담회를 서울 시내 식당(강남 진진바라)에서 개최하였다.

우리 협회 회장단에서는 김희용 [동양물산기업(주) 회장] 부회장을 비롯하여, 정영현 [(주)천마 고문] 상임이사, 이수철[(주)캠크로스 인터내셔널 회장] 상임이사 등 총 24명이 참석하였다, SJC 임원단에서는 고바야시 타다시[한국스미토모상사 사장] 이사장 등 15명이 참석하였으며, 일본 대사관 측에서도 무토 마사토시(武藤 正敏) 대사가 SJC 명예이사장 자격으로 참석하였고, 우야마 토모치카(宇山 智哉) 공사 등 5명의 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본 간담회는 우리 협회 회원사와 SJC 임원단과의 정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비즈니스 정보 교환 및 양국 간 경제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경제교류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1년 8월 개최 이후 두 번째 개최되는 교류 간담회였다.

이날 김희용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은 건배인사에서 “요즘 같은 민감한 시기에 정치는 큰 영향을 받겠지만, 기업인의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말하고, “기업인의 의무는 성장이며, 어려울수록 더욱 페달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는 “최근의 한일관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말하고, “한일 간 인식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서로 존중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하고, “한일경제협회와 SJC의 교류 간담회와 같은 경제인 간의 모임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우리협회 이종윤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 침체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바톤을 동아시아가 가져와야 하며, 그 중심이 한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동아시아 경제 질서를 바꾸어야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양국 기업인들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논의한다면, 지금의 정치, 외교 갈등도 쉽게 풀릴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고바야시 타다시 SJC 이사장은 “최근의 한일관계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나, 상호이해를 통해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민간교류이며, 오늘 이와 같은 한일경제협회와 SJC간의 친선교류, 의견교환의 장은 매우 의미 있는 모임이다”, “교류라는 것은 그만두기는 쉬우나, 다시

시작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한일 간의 경제 교류는 지속되어야 하며, 미래 협력 기대를 버려서는 안된다”고 주문하였다.

한편, 초청 강연자로 참석한 이향철 광운대학교 교수는 ‘한일경제협력 증진’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최근 한국의 교역조건이 좋아진 결과 일본 기업의 대한투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한일 양국은 단순한 비교 우위론적 관점이 아니라 근본적인 리스크 분산형 서플라이체인 내지는 분업 체제를 재구축해 나가야한다” 제안하고, 또

한 “동아시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내셔널리즘의 극복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보편적 동아시아 협력관계의 구축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이번 만찬 간담회는 참가자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자유롭고 활발한 의견 교류가 이루어져 매우 즐겁고 유익한 만남의 시간이 되었다는 평가로, 최근 경제 외적인 문제로 양국 관계가 불편해져 있으나, 한일 간 경제 교류 협력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또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보여준 자리였다.



## 무토대사 초청 간담회

-무토 마사토시(武藤 正敏) 특명전권대사 송별회-

지난 10월 19일(금), 서울 롯데호텔 38층 무궁화홀에서 무토 마사토시(武藤 正敏) 특명전권대사의 송별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송별회는 10월 20일(토)에 일본으로 떠나는 무토 대사를 환송하기 위해 (사)한일경제협회와 (주)효성의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한국측에서 조석래 (사)한일경제협회회장 외 9명이, 일본측에서는 무토 마사토시 대사 외 3명이 참석하였다.

조석래 회장은 “정치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제협력은 매우 활발한 상황이며, 이것이 무토대사의 업적”이라고 말하고, “한일 FTA는 무토 대사를 대신하여 남아있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무토대사는 “한일이 하나의 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 서로 Win-Win하는 방법이며, 내년에는 FTA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판단 된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경제적 협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대한투자가 늘고 제3국 공동진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FTA의 발효 없이는 양국 경제권을 하나로 만들 수 없으며, 저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FTA의 발효는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한일FTA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일규 베스트웨스트코리아 회장은 “한일 간 경제체는 향후 더 없는 파트너십을 구축해야하며 무토대사께서는 더 활약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무토 대사



의 건강과 앞으로의 활약을 응원하는 건배 제의를 함으로써 송별회의 아쉬움을 위로 했다.☞

## 한일산업기술페어 2012

지식경제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최하고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사장 : 조석래 효성 회장)과 일본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이 주관하는 ‘제5회 한일산업기술 페어 2012’가 9월 25일(화)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되었다.

한일산업기술 페어는 2008년도부터 재단 사업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양국 부품소재 분야의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자리이다.

올해는 한일 양국 간 산업기술협력에 기여가 높은 기업을 발굴해 한일산업협력상을 수여하였고, 양국 기업 간 부품소재 조달공급 상담회, 일본 퇴직기술자 50명을 초청해 국내기업에 매칭 시켜주는 기술지도 상담회,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주제의 한일산업협력 세미나 등이 개최됐다. **KE**



## ▣ 주요활동 결과 요약

### 【한일산업협력상 포상】

○ 한일재단 이사장 표창 대상 : 2사/2인

#### ① 2사

- (주)그린광학 / ※ 수공기간 3년  
: 일본 수출 증진(2011년 6억원)
- 아오야마국제(주) / ※ 수공기간 4년  
: 기술자의 일본어능력 증진  
(4년동안 연간 15명씩 교육)

#### ② 2인

- (주)성원이엔지 우상덕 기술최고경영자  
※ 수공기간 3년  
: 일본기업과의 MOU유치 및 일본기술자 기술지도 추진으로 자사 기술·수출증진에 기여(1.7억원)
- 한일정밀주조(주) 이정선 대표이사  
※ 수공기간 3년  
: 1996년부터 일본 스미토모중기계공업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매년 6억 원상당의 로스트왁스 정밀주조품을 일본에 수출.  
※ 수공기간 18년

### - 평가 -

- 한일 양국 간의 산업협력 성공사례 발굴을 통해 한일협력의 필요성 확산에 기여함.
- 일한재단의 추천으로 일본기업과 일본 기술자에게도 협력상을 수여함으로 경제협력 동반파트너로서 일본의 의미를 새롭게 부각시킴.

### 【한일부품소재조달공급상담회】

- 규모 : 양국 251개사  
<일본기업-40사(조달:38, 공급:2), 한국기업-191사>
- 실적 : 총 상담건수-313건, \$ 96,778,700

#### ※ 주요실적

- 유니슨음향 마이크로스피커 부품 수출  
- 성약예상금액 : \$1,000,000.-
- 일신테크 롤러가이드 부품 수출  
- 성약예상금액 : \$1,270,000.-
- 한국내쇼날 사출성형 자동차부품 수출  
- 성약예상금액 : \$1,200,000.-

### - 평가 -

-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오사카상공회의소 등을 비롯한 일본의 협력기관으로부터 36사가 방한하여 한국 참여기업 151사와 256건에 이르는 상담을 실시.
- 전체 256건의 상담건수 중 거래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중』이 전체 대비 과반수인 128건(50%)로 나타났으며, 거래 가능성 매우 유망한 『상』이라고 답한 상담안건은 40건(15%)으로 파악되어, 향후 거래가능성이 기대되는 건수가 168건으로 전체대비 66%로 조사되어 본 상담회가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상담매칭이 이루어져 진행되었음.
- 또한 조달 기업의 경우 일본의 우수 글로벌 기업을 초청하여 진행된다면 성과 제고는 물론이고 한국기업의 관심 및 언론의 조명을 받을 수 있어 산업기술페어 행사의 홍보에도 많은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 한일기계플랜트기자재 조달공급상담회는 일본기업이 4사만 참여했지만 성약 추진이 진행되는 안건이 3건(213백만 엔)으로 8천 3백만불의 상담금액을 기록함.
- 사전에 상담매칭이 많았던 일본기업의 경우에는 상담 담당자를 2명 이상 배치하여 동시에 상담을 진행하는 등 일본 조달기업 1사당 약 14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내실 있게 상담회가 진행되었음

**【기술지도매칭상담회】**

- 규모 : 한국기업 34사, 일본 기술자 38명
- 실적 : 58건(\*기술지도 매칭 체결 예상 19건)

- 평 가 -

- 한국기업 총 34개사의 상담결과서를 취합한 결과, 총 18사(19건)가 일본기술자와의 계약이 확정되거나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기업과 자체발굴기업(총 9사)을 대상으로 선정심의평가회의(10월 중순)를 개최할 예정임.

**【한일산업협력세미나】**

- 평 가 -

- ① 기술개발 강연은 중소기업 CEO의 ‘현장’ 경험에서 나온 경영철학이 효율적으로 전달되어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인 참가자들의 공감을 얻음. 차기 세미나에서도 참가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경영철학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중소기업CEO강사 발굴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② 환경경영의 경우, 다른 세미나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혼다의 환경경영 사례가 상세히 소개되어 환경경영을 생각하는 기업에게는 많은 참고가 된 것으로 판단됨.
- ③ 글로벌 전략 강연은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추진의 당위성이 명확하게 전달되었다는 평가를 받음.
- ④ 인재육성 강연은 세상에 들도 없는 최고의 부품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경영자의 노력이 진솔하게 드러난 강연이었다는 평가를 받음. 강연자의 생산 시스템 개선 및 인재육성에 대한 철학은 많은 참가자들의 공감을 얻음.

- 평 가 -

- 금번 세미나 주제인 「기술개발」 「환경경영」 「글로벌전략」 「인재육성」은 나름대로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주제로, 세미나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음.
- 차기 세미나에서는 지금처럼 복수의 테마를 정하지 않고 당해에 이슈가 된 한 개의 테마를 설정하여 중소기업CEO 및 전문가가 다양한 각도에서 강연을 진행하고 성공사례를 소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강연개요-

<p>① 기술 개발</p> <p>-강사 : 조 홍래 (주)한국도키멕유공압 대표</p> <p>-주제 : 글로벌(Glocal)시대 중소기업의 변화와 대응</p> <p>-내용 : 유공압기기 업계1위 기업인 한국도키멕유공압의 기술개발 과정을 소개하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은 어떻게 변화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또한 그 변화가 어떻게 기술개발 전략에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강연.</p>	
<p>② 환경 경영개발</p> <p>-강사 :篠原 道雄 (SHINOHARA, MICHIO) 혼다기연공업(주) 환경안전기획실장</p> <p>-주제 : 자유로운 이동의 기쁨과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p> <p>-내용 : 일본의 친환경 제품 개발에 매진해온 혼다의 성과를 소개하고, 환경경영의 필요성을 역설.</p>	
<p>③ 글로벌 경영 전략</p> <p>-강사 : 오 동윤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p> <p>-주제 : 한국 중소기업의 최고의 글로벌파트너는 누구인가</p> <p>-내용 : 중소기업이 왜 글로벌화를 해야 하는가와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전략에 대한 해답을 제시</p>	
<p>④ 인재육성</p> <p>-강사 : 池上 正純 (IKEGAMI, MASAZUMI) 신일본스텐레스공업(주) 대표</p> <p>-주제 : 경쟁에서 작은 조직이 생존할 수 있는 인재육성</p> <p>-내용 : 정밀스텐레스가공 전문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추진하는 인재육성 방식으로 기술의 매뉴얼화와 실패로부터 배우도록 하는 조직문화 등을 소개</p>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

## –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

지난 11월 28일(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열린 토론이 펼쳐졌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한일경상학회가 주관,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하였고, 경제계, 학계, 기업 등에서 120명이 참가하여 소재·부품산업에 있어서 한일 양국간의 경쟁력 제고와 무역역조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이종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무이사(兼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는 “한국과 일본은 협력과 경쟁을 병행해 새로운 시장을 공동 창출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어 “지난 67년간 한일 양국 경제관계에 분기점이 된 주요 사건들을 분석하고, 글로벌 통상환경의 큰 변화를 맞이한 양국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기동 한일경상학회 회장은 소재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한 납품단가 인하 관행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면서도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재량권을 폭넓게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홍배 동의대 교수는 “내수 시장 축소로 일본은 신흥 시장 개발에 대한 절박감을 갖고 있고 신흥국들도 한국의 기술력

을 빠르게 뒤따라오고 있다” 며 “변화한 환경을 직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일 무역역조 개선을 위해 설립된 한일재단의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로, 시기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테마로 개최되었으며,

한국의 경제발전과 한일 두 나라 간의 우호 증진에 더욱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대일 무역역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일본의 기술력을 국내 중소기업에 소개하는데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전개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은 협력과 경쟁을 병행해 새로운 시장을 공동 창출해 나



가야 하는 새로운 임무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일산의 신현장 상무는 새로운 제품트렌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고, LED를 생산하는 AND는 일본진출을 앞두고 좋은 정보를 얻었다고 전하였다.☞

### 일본기업과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일본지식 정보

2012년도 일본 주요기업(272社)의 연구개발비 투자는 작년대비 4.3% 증가한 11조 757억엔. 자동차·기계분야는 증가하였고, 전기·IT분야에서는 답보상태이었으며, 주요기업 대부분은 차세대 에너지 분야에 중점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2012년도 272개사 일본주요기업의 연구개발투자비는 작년보다 4.3% 증가한 11조 757억엔에 달함
  - 272개 주요기업들 중 연구개발비 투자가 늘어난 기업은 198개, 현상 유지한 기업은 11개, 줄어든 기업은 64개로 나타남
    - 연구개발비가 크게 늘어난 산업분야는 기계(16.9%), 자동차·자동차 부품(6.5%) 및 소재(5.1%) 분야임
- 주요기업들이 성장 동력으로 차세대 에너지 분야에 중점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R&D분야는 축전지(47.5%),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38.7%), 신소재(30.5%)순으로 나타남
- 국내·외 연구개발거점별로 연구개발 활동의 역할분담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 국내거점은 미래성장산업의 기반이 되는 전략기술에 특화하고, 국외거점은 글로벌시장 대응 및 현지에 적합한 제품개발에 집중
    - 연구개발을 위해 국내거점을 유지·증강한 기업은 73.6%, 글로벌시장 대응 등의 목적으로 국외거점을 신설·증강·확충한 기업은 22.6%으로 나타남

- 시사점
  - 일본 주요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는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차세대 에너지분야 중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 한국 주요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는 71.1%가 전자산업분야에 집중되고 있어, 일본과 12.6%('12) 비교할 때 '전자산업'으로의 쏠림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sup>1)</sup>
    - R&D투자의 1순위로 대기업은 반도체제조업, 중견기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으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R&D 투자비 중도 감소
    -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세대 에너지 분야 또는 제약 산업 등 미래 성장산업 중심의 연구개발투자가 필요함<sup>2)</sup>

<참고자료>

日本經濟新聞(2012.8.12)

- 1)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세계 1000대기업 연구개발 투자비중 조사보고서(2011)
-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2011년도 R&D 1000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동향(2011)

#### <2012년도 연구개발투자 상위 10개사 및 중점R&D분야>

순위(전년도)	사명	연구개발비(억엔)	전년도대비 성장률(%)	중점투자분야
1(1)	토요타자동차	8,100	3.87	연료전지, 축전지, 바이오연료
2(3)	혼다	5,550	6.77	태양광발전, 연료전지, 축전지
3(2)	파나소닉	5,100	1.96	태양광발전, 연료전지, 축전지, 간병로봇
4(5)	닛산자동차	4,850	13.32	축전지, 차세대송전망, 연료전지
5(4)	소니	4,800	10.73	축전지, 재생소재, 모의실험기술
6(6)	히타치제작용	3,500	15.15	축전지, 희소금속free소재, 재생의료
7(7)	토시바	3,400	6.28	축전지, 차세대송전망, 대기토양수질정화
8(8)	캐논	3,150	2.34	NT, 로봇, 소프트웨어
9(9)	덴소	3,100	3.90	축전지, 바이오연료, 차세대송전망
10(10)	타케타약품공업	3,100	9.97	중추신경계, 항암제, 재생의료

# 한일 하나의 경제권을 향한 구체적 전략

## 제5회 일한경제심포지엄 기조강연

2012. 11. 29. 일본 동경 경단련회관

(사)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李 鐘 允



### 1. 한·일 하나의 경제권 형성의 필요성

한국과 일본은 왜 이 시점에서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 구미가 주도해 오던 국제통상 질서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세계경제에 있어서의 구미의 주도권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를 기화로 미국 경제는 침체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경기침체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는 왜 취약해졌는가? 미국 경제는 1980년대 이래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어 왔는데, 이는 제조업의 약화에 기인한다. 일국 경제에서 금융 산업은 제조업의 지원적 기능을 하며 제조업의 발전과 비례하여 발전되어 가야 정상적인데, 미국의 경우 금융 산업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되어 제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그 금융 산업마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붕괴에 따라 약화되었는데, 산업 전반에 걸친 이러한 약화상태는 단시간에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미국경제

가 정상화 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EU의 경우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금융 산업의 비중이 높았고, 사회보장 시스템에 과도한 재정 지출을 계속해 왔으며, 근로정신은 약해졌다. 따라서 경제력에 상응한 사회보장 시스템의 재정비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 지적한 요인으로 인해 상당기간에 걸쳐 미·EU가 세계경제를 주도해 나가기에는 역부족이며, 세계경제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사료된다. 구미시장 의존적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온 동아시아국가들로서는 그 공백을 대신해 줄 존재가 필요해 지는데, 여기에 동아시아경제공동체의 형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 동아시아경제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시장메커니즘에 기반을 둔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경제활동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시장공동체는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역내 국가들 중에 시장메커니즘이 가장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국가는 단연 한국과 일본이다. 동아시아경제공동체 건설에서 한·일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게다가 한일 모두

인구밀도가 높고 자원부족으로 인해 역내 어느 나라보다도 대외 지향적 성장을 필요로 하고 있어서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한 양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동아시아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한·일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일의 강력한 협력이 요구되는데, 그 협력을 위한 최상의 형태가 다름 아닌 ‘한·일 하나의 경제권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한·일 하나의 경제권화’는 한·일 경제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키는가?

## II. 한·일 하나의 경제권화의 이점

### 1. 제3국에서의 과당경쟁 방지

양국 산업구조의 유사성으로 인해 한·일 기업이 제3국에서 과당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한·일 양국의 교역조건을 악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한·일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된다면 그 과정에서 산업 내 분업이 확대되고, 한·일 양국 기업이 각각의 비교우위에 의거하여 특화되는 프로세스를 통해 자연스럽게 과당경쟁이 지양될 것이며 그에 따라 양국의 교역조건도 개선될 것이다.

### 2. 생산기지에 대한 리스크 분산

일본은 지진과 쓰나미 다발, 한국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로 인해 생산기지 파손의 위

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하나의 경제권이 실현되면 양국의 기업은 한국과 일본을 하나의 범위에 놓고 최적의 생산기지를 배치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이 가진 의미는 한·일 기업이 함께 리스크분산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 3. 한·일 기업 주도의 표준화

정보화시대가 된 금일의 세계시장에서는 표준화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어떤 국가 어떤 기업의 제품으로 표준화 되는가는 매우 중요한데, 특정 기업의 제품이 일단 국제 표준품으로 정해지면 다른 기업은 국제표준이 된 제품에 맞추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국의 기업은 자사 제품을 국제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표준이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내수시장의 크기이다. 내수시장, 또는 준내수시장(지역단위의 공동시장)이 크면 클수록 기술적 수준과 코스트 경쟁력을 높이기 유리하기 때문에 그 국가(또는 지역공동체) 소속기업의 제품이 내수시장 규모가 적은 국가의 기업제품에 비해 표준화로 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 점에서 미·EU가 한국과 일본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하겠다. 한·일의 하나의 경제권, 더 나아가서 한·일의 주도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가 형성된다면 동 지역의 제품이 국제표준이 될 가능성이 월등히 커진다고 할 수 있겠다.

#### 4. 제3국 공동진출

##### -해외자원, 인프라 수주-

한·일 모두 가공무역입국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원자재의 안전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자원 개발이나 인프라 수주에서 한·일 기업이 공동 진출하여 개발과정에서의 역할을 비교우위기능별로 적절히 분담하게 되면 개발비용 절감, 개발된 자원의 수요확보, 개발에 따른 제 위험부담 경감 등의 이점을 살릴 수 있다.

일본은 풍부한 정보력과 자본력, 그리고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EPC기술력과 가격경쟁력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어서 양국의 조합은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3국에서 한·일이 협력하면, 식량 작과 그리고 첨단기술 개발도 저렴한 가격으로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 5. 韓의 순발력 + 日의 계획성

##### = 시너지 효과

한국인은 일본인에 비해 순발력과 추진력이 높고, 반면에 일본인은 한국인에 비해 계획성과 철저함에 있어서 뛰어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일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되어 한·일의 기업인이 필요한 인력을 양국에서 자유롭게 채용한다면 계획성과 철저함이 필요한 부서에는 일본인을, 그리고 추진력과 순발력이 필요한 부서에는 한국인을 배치하는 식으로 그 특성에 맞추어 인적자원을 적절히 배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한·일 기업은 지금보다 월등히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일·일한 경제협회가 매년 공동으로 개최하는 ‘한·일 고교생캠프’에서 실시하는 ‘한일고교생 합동사업발표회’는 위와 같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

### Ⅲ. 한·일 하나의 경제권의 추진 방식

그렇다면 ‘한·일 하나의 경제권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가?

가장 신속한 방법은 한·일간 FTA 체결이겠지만,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들로 인해 FTA체결이 용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한일 간에 저항이 적고 접근이 용이한 것부터 차례차례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한일이 하나의 경제권이 되도록 하는 접근방법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 1. 한일 간 인적·물적 자원의 자유스러운 교류

‘한일의 하나의 경제권’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무엇보다 강력한 수단이 한일 간 인적, 물적 교류를 원활하게 하는 일일 것이다.

인적교류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장기체류가 가능한 NO비자그룹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 경제인과 기술자를 비롯한 상호의 경제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직업인들에게

자유로운 이동 및 장기체류를 보장하는 일이다.

물적 교류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양국을 포괄하는サプライ체인(수급체인)의 구축이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한일 각 기업들로서는 한일양국에 걸쳐 각자의 필요에 맞추어 적절하게 리스크 관리대책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말할 필요도 없이 양국 관계의 긴밀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2. 지역 간 교류의 확대와 SOC정비

한일양국 지역 간 교류를 확대시키고, 지역 간 교역증대에 필요한 SOC등을 정비시켜 나간다면 하나의 경제권화를 촉진시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한일경제협회는 일본의 北陸지역(福井, 石川, 富山)과의 경제교류를 진행 중인데, 세미나 등을 통해 양 지역 간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물류시스템의 정비 등 SOC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 되고, 교역확대 및 투자활성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 3. 테크노마트의 설립 및 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한일 간에 테크노마트를 설립하여 필요한 기술에 각 기업들의 접근을 쉽게 하고, 나아가서 양국의 연구자, 기술자 및 기능인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한일 양국 기업이 필요한 기술·기능의 확보 및 기술개발을 용이하게 한다면 양국 경제의 긴밀화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 4. 에너지 확보에 있어서의 공동 대응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일본은 에너지 공급 구조에서 큰 비중을 점하던 원자력 비중을 급속히 축소시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에너지의 충분한 확보’가 일본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에너지 문제의 극복을 위해 한·일이 양국의 에너지기술을 결합하고 공급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공동으로 수립하면 충분한 양의 에너지 확보 및 구입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5. 농업부문에서의 한일 간 상호투자

한일 간 FTA체결을 지연시키는 하나의 요소로 일본농업의 취약한 경쟁력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한일 간에 이 문제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농업부문 중 양국의 비교우위부분에 상호투자를 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 한일 양국의 농업자본가 간 자본적 결속은 비교우위에 입각한 양국농업 내 각 분야별 구조조정을 수월하게 하고, 한일농업자본의 제3국 공동 진출도 용이하게 할 것이다.

## 6. 환경문제에 공동 대응

동아시아는 세계의 공장지대로 불릴 정도로 공업화가 왕성한 지역이며, 따라서 환경문제가 동지역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 환경문제는 황사나 원자력 방사선 유출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개별 국가

의 문제를 넘어서 각 국가 간에 걸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한·일이 환경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환경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양국 국민으로부터 크게 환영받을 것이고, 양국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 7. 외환문제 공동대응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때는 당시 역내 국가들이 경상수지 흑자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활동 노하우의 부족 내지 역내 금융공조체제의 미비로 역내 각국 경제가 상당기간 극심한 침체상태를 초래했다.

지난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역내 특정 국가에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인접국가에도 연쇄적으로 파급되어 역내 전 국가에 금융위기 나아가서 경제위기가 전염된다. 이는 역내 각국 간에 무역, 투자 및 금융 등의 여러 면에 걸쳐 이미 상당한 의존체제가 형성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쓴 경험으로부터 한일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mai Initiative)를 통해 공동출자에 의한 기금을 조성하여 비상시에 대처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역내 2국 간에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여 2국 중 특정국가의 일시적인 외화부족에 대처하는 체제도 정비시키고 있다.

기술한 바와 같이 통화스와프 체결은 외화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국가를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국가로부터 발생한

위기가 역내에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한일 간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는 한국은 물론 일본에도 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8. 공통의 문화적 유산 적극 활용

한·일은 몇 가지 중요한 동질성을 보유하고 있다. 양 국 모두 유교문화권이고, 언어는 어순이 같으며, 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자(漢字) 또한 표기법과 의미가 거의 동일하다. 이 공통의 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하여 두 나라의 동질성을 양국 국민에게 인식시켜 나간다면 양국 간 교류확대와 하나의 경제권화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공감대가 확산되리라고 본다.

### (결언)

최근 세계경제가 심각한 침체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그것은 세계통상질서의 재편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세계통상질서를 주도해온 미국과 EU는 오랜 세월을 걸친 내부적 모순으로 인해 체력이 약화되어 더 이상 세계통상질서를 주도하기 어렵게 되었다.

구미시장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온 동아시아 국가들로서는 구미시장의 축소분을 대신해 주는 존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동아시아경제공동체'이다.

동아시아경제공동체는 한일이 협력하여 주도하여야 한다. 양국 모두 시장 메커니즘과 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이 정착된 국가이

며, 또한 좁은 국토와 부족한 자원으로 인해 안정된 해외시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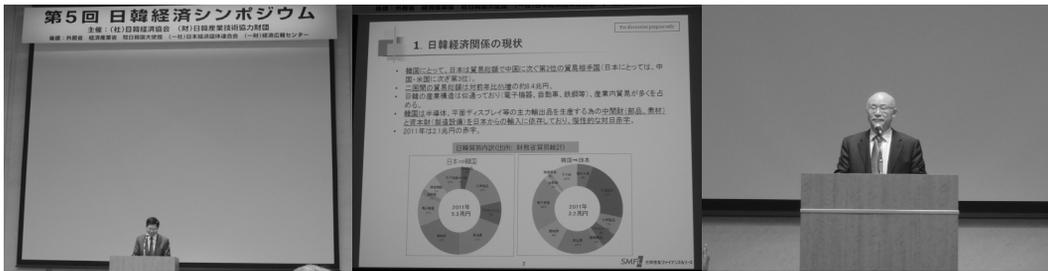
한일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형태가 한일의 하나의 경제권화이며, 한일 하나의 경제권화를 위한 보다 치밀하고도 체계적인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하나의 경제권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필요성에 대한 양국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경제 논리에 입각하여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접근방법 시행이 필요하다 하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일 간에는 해결이 요하는 적지 않은 과제들이 있어 한일관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그런데 그 과제들에 얽매이면 한일관계는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한다.

경제문제는 이러한 문제들과 분리시켜 철저히 경제논리로 접근한다는 인식을 확실히 해야 한다. 유럽이 경제적 필요성 때문에 27개국이 연합하는 EU를 창출해 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며, 한일의 분발이 강력히 요구되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 지난 12월 20일(목) 제8회 한일경제협회 회원사 간담회에서 발표된 글로벌 비즈니스전략 지침서 '볼륨 존 전략'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 제8회 한일경제협회 회원사 간담회 개요 ■

- 일 시 : 2012년 12월 20일(목), 17:00~20:00
- 장 소 :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아이비홀
- 참석자 : 한일경제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회원사 등 약 50여명
- 목 적 : 한일 간 이슈 등에 대한 전문가 초청 강연을 통해 對 일본 관심도 제고 및 정보 제공

## 글로벌 비즈니스전략 지침서 '볼륨 존 전략'에 대해서

### 7분의 1 값 휴대폰·저가 소형차... 20억 '볼륨 존' 시장은 혁신 戰場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지평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경제 규모가 5년 후인 2017년에 일본 경제의 두 배로 커질 것이라고 최근 전망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세계경제에서 아시아권의 비중이 현재 20%대에서 2050년에 50%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런 사실은 향후 세계경제의 주축이 신흥국으로 넘어가며, 여기서 성장 기회를 잡으려면 '볼륨 존' 공략이 절실함을 일깨워준다.

'볼륨 존' 공략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까지 안정적인 생존을 위한 필수 경영 과제이다. 이유는 두 가지이다. 먼저 볼륨 존에서 유행하는 제품은 대다수 영역에서 제품과 기술의 향방을 결정짓는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볼륨 존은 저가(低價)이면서도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가장 치열한 혁신 전장(戰場)이 되고 있다. '볼륨 존'을 기반

으로 신기술과 신제품을 개발한 기업이 선 행 기업을 도태시키는 '코스트 파괴적 혁신'은 물론 이 지역의 제품·서비스가 선진국으로 역수출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볼륨 존 전략'의 세부 방법론을 짚어본다.

#### ◇ '뺏속까지 현지화'로 자기만의 '승리 방정식' 만들어야

세계 최대 식품 기업인 네슬레 본사의 부사장은 동남아를 포함한 신흥국 현지의 저소득층 가정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단기간 공동생활을 한다. 스위스 본사의 마케팅 담당자는 현지 소비 계층 가정에서 며칠간 공동 생활하며 현장 소비 습관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 네슬레의 인기 초콜릿 과자 '킷킷'

전 세계에 8000개 넘는 브랜드가 있는 네슬레에는 10개국 이상에서 등록한 브랜드가 80개 남짓하다. 그나마 선진 시장과 신흥 시장에서 공통으로 내놓고 있는 네스카페와 킷킷(KitKat·초콜릿 바) 등 10개 글로벌 전략 브랜드도 대부분 맛·포장은 물론 원료 구입과 공법(工法)까지 현지별로 각양각색이다. 세계 70개국 이상에서 판매 중인 '킷카트'의 맛과 당도(糖度) 역시 국가마다 다르다. 이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신흥국 시장을 겨냥한 'PPP(Popularity Positioned Product) 제품 전략'의 일환이다.

네슬레는 이 전략에 따라 베이징(중국·2008년)·아비장(코트디부아르·2009년)·산티아고(칠레·2010년)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14개 지역별 연구개발(R&D) 센터와 제품 기술 센터(Product Technology Center)를 운영하며 맞춤형 공략을 하고 있다. 네슬레는 올 들어 9월 말까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 넘게 늘었고 중국 등 신흥 시장의 올해 매출 증가율은 40%대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 ◇ 저비용 고품질의 '혁신자만 살아남는다'

볼륨 존 시장에서는 단순 원가 절감식 생산으로는 버틸 수 없고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을 목표로 기술·제품 체계의 혁신 능력을 갖춘 '혁신자(innovator)'로서 역량 발휘가 필수적이다.

중국 통신 기기 제조 기업인 화웨이(華爲)와 ZTE가 대표적이다. 두 회사는 중산층이 폭증하는 중국을 겨냥해 저가 스마트폰 개발에 집중했는데, 화웨이가 만든 스마트폰 IDEOS는 구글의 안드로이드OS를 탑재하고 대당 가격이 100달러를 밑돌아 경쟁사 제품 7분의 1 정도로 저렴하다. 2010년 케냐에서 선보인 이 제품은 1년여 만에 케냐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45%대를 기록했다. 화웨이는 작년 11월부터 미국 AT&T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 Impulse라는 저가 스마트폰 판매를 시작했다.

ZTE는 종업원 7만명 가운데 아프리카에서만 1만명을 고용하며 총매출의 20% 정도를 아프리카 시장에서 올리고 있다.

일본 닛산 차가 태국에서 2010년 시판한 저가 소형 자동차인 '마치(March)'도 성공적인 혁신 케이스이다. 닛산은 '마치' 개발팀 10명에 태국과 인도인 엔지니어를 포함했고 1개월 정도 인도에서 시장 조사를 실시했다. 또 차량의 전체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일본제 강판 대신 인도에서도 조달할 수 있는 철강재를 써 가격 부담을 낮췄다. 신형 '마치'는 출시 후 2주 만에 당초 월 판매 목표(4000대)의 3배가 넘는 1만2147대가 팔렸고 일본으로 역수입까지 되고 있다.

## ◇ 한국 기업, '선점'과 '성장 프런티어' 확장 절실

볼륨 존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경쟁 기업들보다 한 발 앞서 가는 게 급선무이다. 특히 신흥국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 도시에도 일찍 진출해 기반을 확보·선점(先占)하는 게 유리하다. 그런 점에서 2000년대 초·중반까지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은 긍정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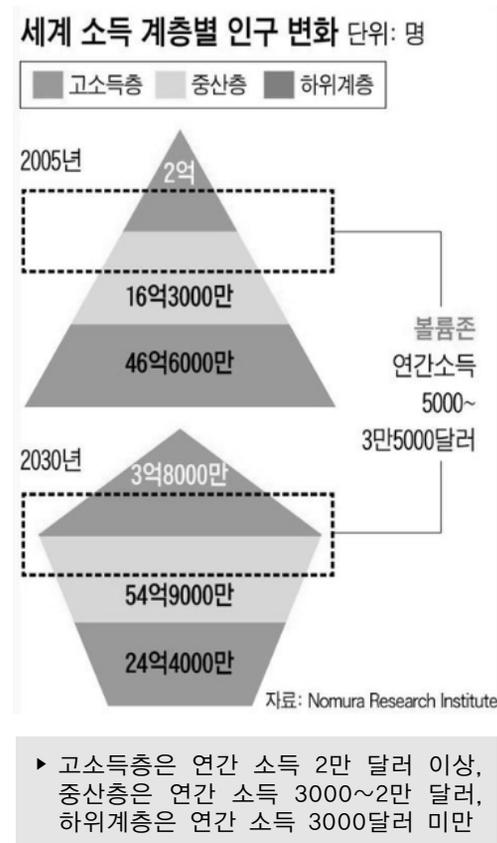
▶ 올해 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2' 행사장에서 중국 화웨이의 직원이 신제품 스마트폰인 '어센드(Ascend) D'를 들어 보이고 있다. / 블룸버그

하지만 일본 기업들이 최근 대반격에 나서면서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인도 시장에는 2005년부터 일본이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매년 수차례 파견하며 투자 진출을 늘려 2006년 267개사이던 인도 진출 일본 기업은 작년 말 812개로 급증했다. 최근 12년간 일본의 인도 누적 투자액은 121억달러로 한국(8억8000만달러)보다 14배 많다. 인도

시장을 통째로 일본에 넘겨줄 위험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제조 기업들이 후발 신흥국에서 성과를 내며 볼륨 존 시장을 평정해가는 것도 부담이다. 한국 기업들은 기존 신흥국 거점의 경영 노하우와 기반을 적극 활용하면서 후발 신흥국의 오지(奧地)나 미개척 시장으로 성장 프런티어를 계속 확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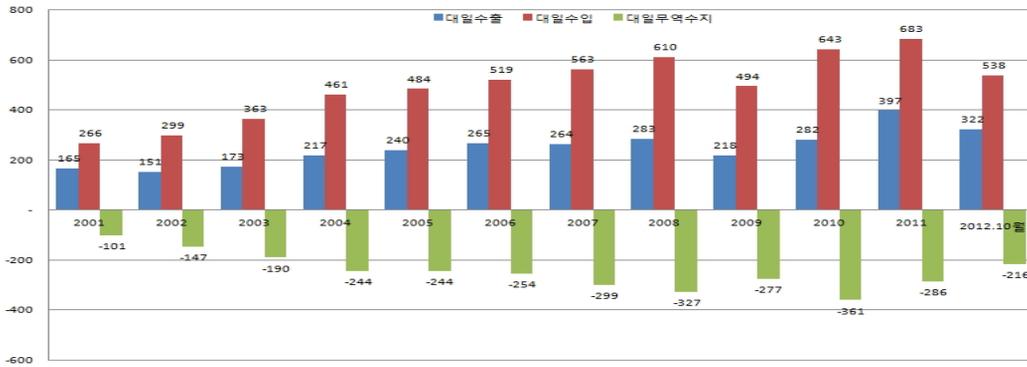
## ☞ 볼륨 존(Volume Zone)



가계당 연간 가처분소득이 5000~3만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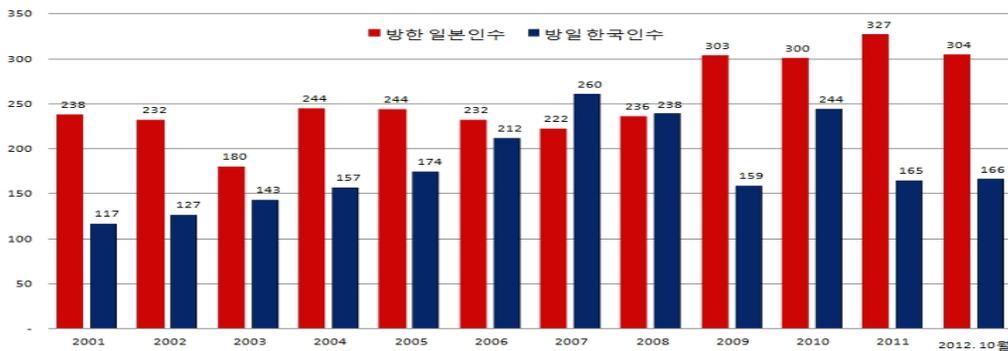


한일 교역 현황 (단위 : 억불)



구분	총수출 (A)	총수입 (B)	총교역액 (C=A+B)	대일수출 (D)	대일수입 (E)	총대일교역 (F=D+E)	대일수출비중 (G=D/A)	대일수입비중 (H=E/B)	대일무역수지 (I=D-E)
2001	1,504	1,411	2,915	165	266	431	11.0%	18.9%	-101
2002	1,625	1,521	3,146	151	299	450	9.3%	19.6%	-147
2003	1,938	1,788	3,726	173	363	536	8.9%	20.3%	-190
2004	2,538	2,245	4,783	217	461	678	8.5%	20.6%	-244
2005	2,844	2,612	5,456	240	484	724	8.4%	18.5%	-244
2006	3,255	3,094	6,348	265	519	785	8.2%	16.8%	-254
2007	3,715	3,568	7,283	264	563	826	7.1%	15.8%	-299
2008	4,220	4,353	8,573	283	610	891	6.7%	14.0%	-327
2009	3,635	3,231	6,866	218	494	712	6.0%	15.3%	-277
2010	4,664	4,252	8,916	282	643	925	6.4%	15.1%	-361
2011	5,552	5,244	10,796	397	683	1,080	7.2%	13.0%	-286
2012. 10월	4554	4331	8885	322	538	860	7.1%	12.4%	-216

한일 인적교류 현황 (단위 : 만명)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10월
방한 일본인수	237.7	232.1	180.3	244.3	244.0	232.0	221.6	235.8	303.2	300.4	327.0	304.2
방일 한국인수	117.0	126.6	142.7	156.9	173.9	211.7	260.1	238.3	158.7	241.5	165.8	166.1
계	354.7	358.7	323.0	401.2	417.9	443.7	481.7	474.1	461.9	541.9	492.8	470.3

(출처) 한국무역협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일본경부관광국(JNTO)

## 한일경제협회 신규가입 회원사

### 신규가입 회원사



#### (주)가나피엔엘

##### 이상범 대표이사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전동 929번지
- U R L : [www.canapnl.co.kr](http://www.canapnl.co.kr)
- 종업원수 : 35명
- 업 종 : 종이, 목재, 출판
- 생 산 품 : 합판필폐상자, 목재밀폐상자, 파렛트, 목재개방상자 등



#### 한국에이엔디(주)

##### 이재춘 대표이사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2 맨하탄빌딩 817호
- U R L : [www.andk.co.kr](http://www.andk.co.kr)
- 종업원수 : 7명
- 업 종 : 전기전자
- 생 산 품 : 전자저울



#### 가나아사히(주)

##### 세키네 노부히로(関根信宏) 대표이사

- 주 소 : 서울 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4-140 유현빌딩 502호
- U R L : [www.canasahi.com](http://www.canasahi.com)
- 종업원수 :
- 업 종 : 위험화물 포장 운송업



#### (주)네오티스

##### 권은영 대표이사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대길 38-9
- U R L : [www.neotis.co.kr](http://www.neotis.co.kr)
- 종업원수 : 241명
- 업 종 : 전기전자
- 생 산 품 : 마이크로드릴비트, 라우터비트, 샤프트

## 2013년 한일경제협회 연간 사업계획(안)

월	일시	행사내용	지역
1	20(日)~25(金)	제3국Project 발굴을 위한 조사단 파견	Indonesia, Thailand
2	18(月)	센다이(仙台)경제동우회와의 간담회	Seoul
		회장단 회의(이사회)	
		제32회 정기총회	
		제2차 한일통상 Forum	
3	7(木)~8(金)	제14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Seoul(COEX)
		제45회 한일경제인회의	Seoul(Lotte Hotel)
		회장단·주한일본대사 친선교류활동	
6		회원사 간담회	
7	28(日)~8.1(木)	제20회 한일고교생교류Camp	일본
		SJC와의 간담회	
8		제8회 한일학생미래회의	일본
9		제12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중국
		회장단·주한일본대사 친선교류활동	
10		제14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한국
		제3차 한일통상 Forum	
11		제20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한국
12		한일·일한경제협회 정례업무협의	일본
		회원사 간담회	

\* 한일경제협회 소식 및 협회 활동 등에 대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무국에 알려 주십시오. 보다 나은 정보제공을 위해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바랍니다.

# 회원가입안내

## 1. 개요

한일경제협회(www.kje.or.kr)는 자매기관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www.kjc.or.kr)과 함께 한일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시키고 상호교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정립에 기여해 오고 있으며, 한일 양국 경제인의 교류 활동을 통해 상호이해와 상호신뢰 구축은 물론 활발한 인적교류 등 민간에 의한 경제외교 활동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2. 회원 자격

우리협회의 설립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한일 양국의 경제적 이해와 협조 및 친선을 위하여 유대를 갖고 있거나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국내외 개인, 법인 및 단체

## 3. 회원가입 및 회비

■ 회원가입 : 소정양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회비와 연간회비를 납부하여야 함

■ 회비구분

구 분	전년도 매출액기준	입회비	년회비
일반회원사	50억 이상	10만원	80만원
	50억 미만	10만원	20만원

■ 입금계좌 : 우리은행 424-04-104432 한일경제협회

## 4. 중점사업

- 한일경제인회의 사업(년 1회)
- 한일신산업무역회의(년 1회)
- 한일 및 한중일 지역간 교류협력 사업(한·큐슈, 한·호쿠리쿠, 환황해경제교류회의)
- 한일청소년(고교생교류캠프)교류 사업
- 기타 한일양국 경제협력을 위한 사업(한일통상포럼, 업종별 교류회 등)
- 회원사 간담회(주한일본대사초청간담회, SJC와의 간담회, 친선교류활동 등)

## 5. 회원사 특전

- 협회주최 및 자매기관(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사업 참여 기회 제공
- 연구조사, 보고서 제공
- 협회 소식지 및 일본정보[지식리포트] 제공
- 협회 보유자료 열람
- 일본기업 소개·비즈니스 정보·신기술동향 등의 일본기업정보 제공(수시)
- 비즈니스 상담회, 기술지도, 일본연수 사업 참여

## 6. 문의처

135-82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2동 112-15번지 한일재단B/D 4층

김정호 부장 (TEL: 02-3014-9877 E-mail : jhkim@kje.or.kr FAX : 02-3014-9899)

## 회원가입신청서

회사(기관)명			
대 표 자	(한글)	(한문)	
	(직위)	(생년월일)	년 월 일 (음/양)
주 소	☞		
T E L	(대표)	(비서실)	
F A X	(대표)	(비서실)	
E - mail	(대표)	(비서실)	
U R L	http://	창 립 일	년 월 일
자산 총액	억원	자 본 금	억원
전년도매출액	억원	종업원수	명
주생산품			
업 종	※ 해당되는 업종 앞에 하나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주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어업, 광업	<input type="checkbox"/> 기계	<input type="checkbox"/> 운수창고	
<input type="checkbox"/> 섬유, 의복	<input type="checkbox"/> 전기전자	<input type="checkbox"/> 통신업	
<input type="checkbox"/> 종이, 목재, 출판	<input type="checkbox"/> 전기장비	<input type="checkbox"/> 금융업(은행, 증권, 보험)	
<input type="checkbox"/> 화학	<input type="checkbox"/> 의료정밀	<input type="checkbox"/> 지주회사	
<input type="checkbox"/> 의약품	<input type="checkbox"/> 운수장비	<input type="checkbox"/> 법무, 회계	
<input type="checkbox"/> 고무, 플라스틱	<input type="checkbox"/> 전기가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비금속광물	<input type="checkbox"/> 건설업	<input type="checkbox"/> 경제단체, 공공기관 등	
<input type="checkbox"/> 철강, 금속	<input type="checkbox"/> 유통업	<input type="checkbox"/> 그 외 업종( )	

〈담당 관리부서〉

부 서 명		TEL	
담 당 자	(성명)	FAX	
	(직위)	E-mail	

본인은 귀 협회의 설립취지와 사업에 동의하며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회사명(단체명) :  
 대표자 : ①

### (사)한일경제협회 귀중

※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어(E-mail : jhkim@kje.or.kr) 송부 후, 첨부서류와 함께 우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135-821) 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 112-15 한일재단빌딩 4층 (FAX : 02-3014-9899)